

# 손흥민, 이집트 상대 A매치 3경기 연속골 도전

통산 101경기서 33골 기록  
벤투호 오늘 오후 8시 맞대결  
상대전적 5승 7무 5패 팽팽

아시아 국적 선수로는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토트넘)이 6월 A매치 4연전의 마지막 상대인 이집트를 상대로 A매치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집트를 상대한다.

이날 이집트와 경기는 6월에 열리는 A매치 4연전의 마지막 경기다.

앞서 치른 세 차례 경기가 브라질(1-5패), 칠레(2-0승), 파라과이(2-2무) 등 올해 11월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우루과이를 가상한 '남미 스타일 모의고사'였다면 이번 이집트전은 역시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가나를 염두에 둔 평가전 성격이다.

대한축구협회는 14일 경기 상대로도 원래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를 추진했으나 아르헨티나 측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하자 이집트를 스파링 파트너로 점찍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 랭킹은 한국이 29위, 이집트는 32위로 비슷하다.

지금까지 상대 전적은 5승 7무 5패로 팽팽하다. 최근 대결은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친선 경기로 당시 한국이 0-1로 졌다.

이집트는 1980-1990년대 대통령배 국제 축구대회에 자주 나온 나라로 특히 1987년 6월 대통령배 때는 한국과 경기 도중 경기장 주변 시위 진압을 위한 최루 가스 사용이 경기 중단되고 결국 0-0 무승부로 종료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이 승리할 경우 2001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LG컵 4개국 친선 대회 2-1 승리 이후 21년 만에 이집트를 물리치게 된다.

한국은 2일 브라질을 상대로 1-5로 크게 졌지만 6일 칠레에 2-0 승리를 거뒀고, 10일 파라과이전에서는 0-2로 끌려가다 2-2 무승부를 만들었다.

수비의 핵심 김민재(페네르바체)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미드필더 정우영(알사드) 역시 왼쪽 발목과 정강이 근육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이집트를 상대로 수비진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건이다.

칠레, 파라과이를 상대로 연달아 프리킥 득점을 올린 손흥민은 세 경기 연속골을 노린다.

한국 선수 최초로 A매치 2경기 연속 프리킥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은 지금까지 A매치 통산 101경기에서 33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이날 이집트를 상대로도 프리킥골을 넣으면 한국 선수 A매치 통산 최다 프리킥 득점 공동 1위가 된다.

이 부문 1위는 A매치에서 네 차례 프리킥골을 넣은 하석주 아주대 감독이고, 손흥민은 지금까지 3골을 프리킥으로 득점했다.

손흥민은 A매치 2경기 연속 골만 6번 기록했고, 3경기 연속 득점은 아직 해 보지 못했다.

12일 한국에 도착한 이집트는 9일 말라위에서 열린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에서 에티오피아(FIFA 랭킹 140위)에 0-2로 완



한국축구대표팀이 이집트와 친선경기를 하루 앞둔 13일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패했다. 이합 갈라(이집트) 감독이 지휘하는 이집트는 살라흐가 부상으로 제외된 가운데 9일 에티오피아전에 선발 공격수로 나왔던 오마르 마르무시(슈투트가르트)도 이번 한국 원정에서 빠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매길로이 벵커샷 로리 매길로이가 13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세인트 조지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PGA투어 RBC 캐나다오픈 최종 라운드 16번홀에서 벵커샷을 하고 있다. 매길로이는 4라운드 합계 19언더파 261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AP=연합뉴스

## 최혜진 LPGA 신인상 부문 선두 도약

숍라이트 클래식 공동 17위

최혜진(23)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2시즌 신인상 부문 1위에 올랐다.

최혜진은 13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글러웨이의 돌체 호텔 시부베이코스(파 71·6,190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쇼플라이트 클래식(총상금 175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비타 4개와 보기 2개로 2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5언더파 208타를 기록한 최혜진은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7), 2019년 신

인왕 이정은(26) 등과 함께 공동 17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로써 최혜진은 올해 신인상 포인트 647점을 획득, 지난주까지 1위였던 아야타 티피꾼(태국·635점)을 따돌리고 선두에 나섰다.

한국 선수들은 2015년 김세영(29)을 시작으로 전인지(28), 박성현(29), 고진영, 이정은이 2019년까지 신인상을 휩쓸었다.

그러나 2021년 패티 타와타나깃(태국)이 신인상을 받아 한국 선수의 신인상 석권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신인상 시상식이 없었다.

이날 끝난 쇼플라이트 클래식에서는 브룩 헨더슨(캐나다)이 최종합계 12언더파 201타로 우승했다.

헨더슨은 린지 위버-라이트(미국)와 벌인 연장 승부에서 연장 첫 홀인 18번 홀(파 5) 두 번째 샷을 홀 3m 앞으로 보내 이글을 잡고 투어 통산 11승을 달성했다.

지난해 4월 LA 오픈 이후 1년 2개월 만에 LPGA 투어 정상에 복귀한 헨더슨은 우승 상금 26만2,500 달러(약 3억3,000만 원)를 받았다.

교포 선수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10언더파 203타로 공동 4위에 올랐고, 한국 선수로는 신지은(30)이 8언더파 205타, 공동 9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연합뉴스

## 황선홍호 일본에 0-3 대패...사상 첫 8강 탈락

황선홍호가 속명의 한일전에서 완패해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아컵 8강전에서 탈락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지난 12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파흐타코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2022 AFC U-23 아시아컵 8강전에서 0-3로 졌다.

직전 2020년 대회 우승팀인 한국은 2연패를 목표로 세웠으나, 8강에서 도전을 마 무리하게 됐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대회에서 한국이 4강에 들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과 일본은 U-23 아시아컵에서 2016년 결승전 이후 6년 만에 마주했다.

당시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2-0으로 앞서던 한국은 일본에 내리 3골을 허용해 역전패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선 조별리그에서 나란히 2승 1무를 기록한 한국이 C조 1위, 일본이 D조 2위에 올라 8강전에서 '리턴 매치'가 성사됐지만, 한국은 설욕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일본은 2024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대회에 21세 이하(U-21) 팀을 파견했는데, 한국은 슈팅 개수에서 12(유효 슈트 2)-15(유효 슈트 9)로 밀리는 등 상대의 공세에 내내 애를 먹었다.

한국은 후반 27분 교체 투입된 오세훈(시미즈)이 1분 뒤 이규혁의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한 게 골문을 외면하며 고개를 숙였고, 후반 35분 스키에게 췌기골까지 얻어맞아 세 골 차 영패를 당했다. /연합뉴스

## 양현종 올스타 베스트 팬투표 2위

1차 중간집계 1위 김태균

KIA 타이거즈 양현종(34)이 2022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 베스트12 팬투표 1차 중간집계에서 2위에 올랐다.

KBO가 13일 공개한 2022 올스타 팬투표 중간집계 현황에 따르면 양현종은 32만8,486표를 받으며 전체 후보 중 2위를 차지, 1위 삼성 김태균을 약 5,500표차로 바짝 추격했다.

올시즌 KBO리그로 복귀한 양현종은 지난 2017시즌 이후 5년만에 개인 통산 4번째 베스트12 선정에 노린다.

5월 들어 반등에 성공해 치열한 순위 싸움을 진행중인 KIA는 상승세에 힘입어 나눔 올스타에서 외야수 부문 한 자리(키움 이정후)를 제외한 11개 부문에서 1위를 휩쓸었다.

나성범, 소크라테스 등 11명 모두가 올스타 베스트12에 선정된다면 2013년 웨스턴 LG, 2021년 드림 삼성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한 구단 베스트 최다 배출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된다.

3년 만에 팬들과 함께하는 이번 올스타전을 기대하는 팬들의 열기는 1차 중



양현종

간집계에서도 드러났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반영되며 올해 1차 중간집계는 총 투표수 60만1,701표로는 전년 대비(54만6,163표) 약 10% 증가했다.

KBO는 지난 8일 2022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12' 팬 투표를 시작해 내달 3일까지 운영한다. 지난 2년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되었다 올해부터 재개하는 선수단 투표(30%)와 팬 투표(70%)를 합산해 최종 결과가 집계된다. 선수단 투표는 6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KBO는 팬 투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1차차 당첨자에게는 LG 티운(식품재배기, 약 20만 원)이 경품으로 주어지며, 아이패드 프로 128GB(약 100만 원) 등 푸짐한 경품들도 팬들에게 증정될 예정이다. /조혜원 기자

## 로니 복귀...KIA 선발 로테이션 숨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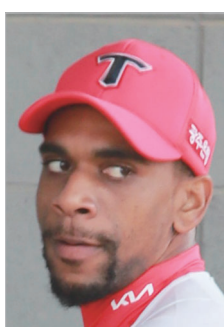
KIA 타이거즈 외국인투수 로니 윌리엄스(26)가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한다. 김중국 KIA 감독은 "로니는 19일 광주 삼성전에 출전한다. 부상은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로니는 지난 9일 오른쪽 굴곡근 염증으로 인해 말소됐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좌측 허벅지 부상으로 약 3주간 이탈한 바 있다.

로니는 올시즌 8경기에서 3승(2패) 평균자책점 4.78의 무난한 성적을 내고 있지만, 잦은 볼넷 허용으로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이 1.54에 달하는 등 제구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였던 지난 8일 광주 LG전에서는 5⅓이닝 동안 4피안타(2홈런) 2볼넷 3탈삼진 6실점으로 흔들렸다.

KIA는 양현종-이의리-임기영-한승혁-놀린-로니로 선발진을 꾸려왔다. 그러나 놀린 역시 종아리 부상을 입어 외국인 투수 2명이 동시에 이탈, 동종선수들로 선발 로테이션을 운영 중이다. /조혜원 기자



로니

153승을 달성한 팀 에이스 양현종이 로테이션을 굳건히 지키며 13경기 중 9경기 퀄리티 스타트 6실점으로 중시타자 역할을 해주 고 있다.

이의리도 12경기 중 5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작성하며 지난해 신인왕 타이틀을 증명하고 있다.

호투를 이어오면서도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던 사이드암 투수 임기영은 지난 9일 광주 LG전에서 시즌 첫승(3패)을 안았다.

KIA는 14일 NC전 선발로 김정빈을 예고했다. 김정빈은 SK 소속이던 지난해 선발 등판했으나 올 시즌 KIA로 이적, 7경기에서는 구원 등판해 9⅓이닝을 소화했다. NC 선발은 이재학이다. /조혜원 기자